

“빛깔과 소리 없는 허공이 바로 법신”



허공의 주인공
비움과 소통 패범
전근홍 지음/1만원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실상(實相)을 전하셨고, 유마 거사는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돌이 아님(不二)의 법문을 했다. 이처럼 연꽃을 들어 보이거나 짐목으로써 법을 보일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며 실상이다. 그러나 스승이 아침에 세수 하시는 것, 공양 드시는 것, 일하시는 것 등 모든 행위가 바로 '소식'이며 지혜다. 이처럼 스승과 일상을 함께하거나 일상에 대해 직접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이다.

이 책 저자인 전근홍 거사의 스승 백봉 김기추(白峰 金基秋, 1908~1985)는 20세기 '한국의 유마 거사'로 추앙받는 불교계의 큰 산맥이다. 그는 50세를 훌쩍 넘겨 불교에 입문했지만 용맹정진으로 단기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20여 년간 속가(俗家)에 머물며 거사풍(居士風) 불교로 중생 교화에 힘쓴 선지식이다. 많은 지식인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의 자비심 넘치는 열정적 설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러서 닫혔던 좁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에서는 시비·분별의 비늘이 떨어졌으며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아 참다운 자유와 안심을 얻은 제자들이 많았다.

백봉 거사는 <금강경강송> (유마경 대강론) (벽오동) <절대성과 상대성> 그리고 15권의 <선문염송요론>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실범을 녹음한 테이프가 300여 개나 되고 제자들은 그 테이프에서 가려 뽑아 <도솔천에서 만납시다>와 <허공법문> (공경인)을 출판하기도 했다.

백봉 거사는 “눈이란 기관을 통해서 보는 눈이 누구나,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눈이 누구나?”며 “빛깔도 소리도 없는 바로 그 자리, 허공이 본바탕이고 법신”이라 강조했다. 다시말해 거사풍(居士風)의 수행가풍을 드넓혔다.

백봉 거사는 경전이나 선어록에 대해 자구(字句) 해석이나 전통적 해설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살림살이를 토대로 막힘없이 설법했다. 특히 자신이 살았던 전통과는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현대인들을 위해 불법의 정수를 알리기 위해 늘 고심했다. 예를 들면, 종래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이해에 머물던 공리(空理) 방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든 상대성을 넘어선 절대적이고 주체적 근원으로 제시했다. 또 이 ‘허공으로서의 나’ 즉, 공경인(空劫人)이 근본적 바탕이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도 우리의 권리로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설했다.

특히 백봉 거사는 이 ‘허공으로서의 나’를 근간으로 전통 화두 방편을 개혁해 새 화두라는 뜻의 ‘새말귀’를 제창했다. 전통적 화두 수행이 승려를 위한 것이라면 새말귀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일하는 재가 수행자를 위해 장안된 것이다. 즉 ‘허공으로서의 나’를 철저히 이해하면 법을 먹든,

백봉, 20여년간 중생교화에 힘써
거사풍 새 화두 ‘새말귀’ 제시
일상생활 모두 화두로 들 수 있어
재가불자 기본자세 10계율 제시

세수를 하든, 운전을 하든 일상 생활 전부를 화두로 들 수 있다는 것이 새말귀의 이념인데, 이는 전통적 화두를 대체했을 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 수행법에 대한 토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백봉 거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재가수행자에게 어울리는 계율과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 말아야 할 10계율”이란 뜻을 가진 <십물계(十勿戒)>에서 “비록 아내와 자식이 있다 해도 쓸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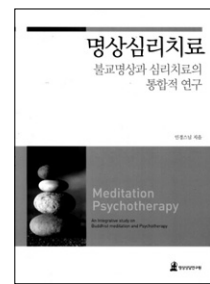
는데 떨어지지 말라”, “가업을 잇더라도 잘못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세상 법도와 함께 해도 대도(大道)를 버리지 말라”, “천하에 노닐면서도 법성(法性)을 무너뜨리지 말라” 등 10계율을 통해 재가 거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말하기도 했다.

40여 년간 스승의 유지를 굳건히 이어온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는 명확했다. 저자는 “가장 감명 깊게 들었고 불교공부의 확신을 주었던 스승의 설법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한사람에게라도 바른 법을 알리려던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였다”며 “스승의 뜻은, 오직 생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출가 할 수 없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 길을 잃고 헤매는 재가 불자들에게 그들의 입처에 맞는 수단과 방편을 제시해 줌으로써 스스로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책에서는 백봉 거사의 핵심 가르침이 자세히, 반복 설명돼 있다. 그리고 제자 지도법과 수행법, 하루 일과 등 저자가 직접 보고 들은 진솔한 수행담이 주로 들어 있다. 아울러 백봉 거사 문하 제자들의 깊은 불연(佛緣)과 간절한 발심, 스승의 인간적 면모와 제자들의 고뇌, 그리고 스승의 지도·점명에 대한 감감 없는 기록을 통해 독자들도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영상관법, 과거 상처 치유에 효과



영상심리치료
인경 스님 지음
영상상담연구원 패범
2만5천원



음악동 이론과 불교명상 및 심리치료, 영상심리치료의 실제 등을 연구방법으로 택했다. 스님은 불교명상과 서구 심리치료학의 통합이 적절히 이뤄진다면 현대불교학은 전통적 인문학의 문헌 해석 방법론서 벗어나 새 영역의 확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효과를 기대했다.

당시 이 책의 저자 인경 스님은 영상심리 치료가 시대적 요청이라 느꼈다. 그래서 2003년 6월 영상상담연구원을 개설해 불교 교설에 기초한 고집멸도 명상상담집단을 운영했다. 이어 2004년 2월에 명상상담 관련 카페를 만들고 2005년에는 공식적으로 명상상담 지도자 아카데미 2급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이후 인경 스님은 2006년 동방대학원대 영상심리학과 초대 교수로 재직했고, 이듬해인 2007년 4월에는 한국명상치료학회 창립에 큰 공헌을 하며 명상상담심리치료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지도자 양성에 탄력을 주었다.

바로 이 책은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며 일종의 영상심리치료 연구 논문이다. 그래서 부제도 ‘불교명상과 심리치료의 통합적 연구’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인경 스님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였다. △ 마음작용 이론체계의 확립 △ 마음현상에 따른 명상 유형과 구체적 실천방안 △ 서구 심리 치료를 통합한 영상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이다.

스님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

대불교학은 전통적 인문학의 문헌 해석 방법론서 벗어나 새 영역의 확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효과를 기대했다.

인경 스님은 다양한 임상 실험과 연구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영상심리치료는 건강한 사람이나 환자 과거 경험서 비롯된 고유한 마음의 작동 모델을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명상을 통해 현실 적용적으로 변화시켜 집착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효과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영상관법’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경 스님은 “과거의 상처가 제 8식 아뢰야식에 영상 형태로 저장돼 있다고 상상한 뒤, 그 것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분해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영상관법”이라고 소개하며 “이 책은 명상치료 최초의 학문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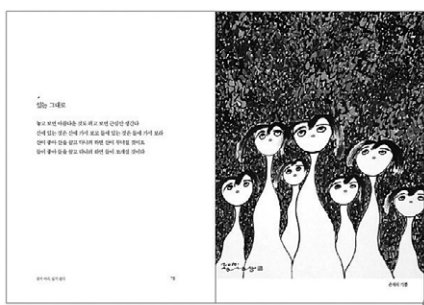
허허당의 서화로 전하는 위로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지음 | 예담 패범 | 1만2800원



허허당 스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는 트위터다. 그림 그리며 떠오르는 단상을 시로 읊고, 그 시에서 소재를 얻어 그린 그림을 트위터에 올리며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 스님의 글과 그림을 두고 어떤 작가는 “가시가 살에 박혔을 때처럼 ‘아!’ 하는 탄성을 발하게 만든다”고 평했다. 또 어떤 미술 평론가는 “스님의 그림은 자유로운 그 자체다. 일필휘지로 생명력 가득한 존재를 담아냈다”라고 탄복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빌리지 않아도 스님의 글과 그림은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듯한 평온함을 준다. 그 평온함은, 인간, 사회, 자연



육바라밀로 정리한 생활법문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성범 지음 | 구봉 패범 | 1만3천원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있는 성범 스님이 일상생활속에서 문득 스치는 좋은 생각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이해하기 쉽게 육바라밀로 주제를 정리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이다. 각 편마다 달려 있는 부제만 봐도 육바라밀을 단박에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인욕’은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정진’은 열심히 사는 삶, ‘선정’은 한가한 사람의 평온 이라고 불었다. 자비의 공동체로 표현한 ‘지계’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조언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배려

하는 자비심이 필요하고 저자는 말한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작은 마음이며,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자기 말을 적게 하는 것은 큰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스님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자기말만 하는 것은 자기기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스님은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몸에서 아픔을 느끼면 ‘아!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도리어 아픔을 고깝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아픔에서 오는 괴로움도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몸의 감각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최소한 마음이 몸보다 더 나의 본질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진 스님의 삶의 지혜들은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수시로 꺼내 들춰보며 위안 받을 수 있는 감로 법문집이다.

김주일 기자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철종

이몽1.2

김시연 지음 | 은행나무 패범 | 1만2천원



왕을 지키려는 충신들과 세도가들의 서로 다른 꿈과 야망을 드라마틱하고 박진감 넘치게 펼쳐 보인다. 저자가 6년간 집필에만 몰두해 완성한 <이몽>은 사용원과 내시, 왕실 의식, 풍속 등 그동안 소설과 드라마에서 왜곡시켰던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노련한 방송작가 출신답게 무겁고 어려운 역사를 영상미 넘치는 문장과 압권의 스토리,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로 되살려 낸다. 임용한, 김인호 등 권위 있는 사학자들이 작품 감수를 마쳤으며 철저한 고증과 개연성을 확보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부터 사용하던 순우리말을 발굴해 전문기초부터 아름다운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녹여 낸 결정체는 평가도 받았다. 이 소설은 능명과 왜곡과 방대로 만신창이가 된 채 역사와 백성들에게 잊혀진 철종의 숨겨진 삶을 누이처럼 때론 학자처럼 애뜻하고 정갈한 시선으로 복원해 낸다.

김주일 기자

淨安寺 心靈治癒院
(사찰등록번호 : 504-8268565)

건강 소망

각종 난치성 말기환자
의학적 치유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
(부처님 가피로 치유지도)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15-1
자연휴양숲 최절경
상담전화 010-6810-6158
자연치유 <http://blog.daum.net/suji6158>
道律 스님 합장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다계, 향화계, 오공양, 읊남, 기경이, 범고
- 사 물 : 범당복,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술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